

# 독일 기업 취업기

해외 기업 이력서, 채용 과정에 대해서

# 어디 취업하셨나요?

- Delivery Hero 백엔드 개발자
- 배달의 민족 모회사
- 올해 9월 1일부터 베를린으로 출근합니다.



***Delivery Hero***

# 왜 여기에 취업하셨나요?



# 어떻게 취업하셨나요?

- 우아한테크코스에서 모기업인 Delivery Hero 채용이 열렸어요.
- 원래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, 주위의 권유로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
- 당시 우아한형제들 지원 시기와 겹쳐서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.

# 이력서 어떻게 쓰셨어요?

- 이력서가 허접한 편이라 이 부분을 넣을지 말 지 고민했습니다...
- 이 글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-> <https://stackoverflow.blog/2020/11/25/how-to-write-an-effective-developer-resume-advice-from-a-hiring-manager/>
- 이력서는 최대한 간결하게,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실적 위주로 작성했습니다.
- 포트폴리오는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, 해결 과정, 성능 향상 방식으로 더 자세하게 적었어요.
- 추천서도 필요했습니다.

**스펙은 어떻게 되시나요?**

# 영어는 원래 잘하셨나요?

- 아직도 영어 잘 못합니다.
- 10월부터 강남 YBM 에서 1:1 회화 수업 듣고 있습니다.

# 채용 프로세스는 어땠나요?

- 특별 채용 과정이라 기존 프로세스보다 간소화되었습니다.
- 1차 면접 (알고리즘 테스트) - 2차 면접 (프로젝트, 개발 지식 면접) - 합격 발표
- Recruiter 가 지원자당 한 명씩 배정되고, Interviewer 도 지원자 마다 서로 달랐습니다.
- Recruiter 는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해주셔서 좋았습니다.



# 면접에서는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요?

- 1차 면접
  - leetcode 문제였는데,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.
  - 주어진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, 알고리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.
  - CoderPad 사용했어요.

# 면접에서는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요?

- 2차 면접

-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,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(해당 질문에서 꼬리질문 이어짐)
- 기술 스택을 사용한 이유
- ~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?
- 이력서에 언급한 기술 설명
- 서비스 구조 설명

#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?

- 우테코 내부 지원자들과 함께 영어 면접 스터디를 했습니다.
- 1차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많은 mock interview 를 찾아봤고, 알고리즘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.
- 2차 면접 때는 제출한 프로젝트 관련 내용, 사용한 프레임워크와 그 이유, 아키텍처에서 개선할 부분같이 프로젝트와 개발 방법론, 프레임워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.

# 해외 기업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?

## 백엔드 개발자 기준

- 정답 아님 주의. 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입니다.
- 해외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mock interview 를 자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
- 이력서에 적은 프로젝트, 사용한 프레임워크, 방법론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
- (아키텍처 면접이 있는 경우)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많이 접해보면서, best practice 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을 고민해보면서, 어떤 부분이 성능 병목이 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.

**뽀뽀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?**



# 여담

- 2차 면접은 1시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30분만 진행
- 합격 발표까지 1주일 이상 소요 (2-3주 소요된 사람도 있음)
- 웬만하면 답장 메일이 바로바로 오지 않는다.
- 미리 취업했어도 비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졸업해야 함

# Q&A

모든 질문 환영